

# 여름철 농업재해 피해 최소화 선제대응

###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 크고 올 여름 폭염일수 증가 예상에 따라

### 농진청, 10월 15일까지 상황실 운영... 발생시 현장기술지원단 신속 파견

농진청(청장 김경규)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고온), 우박 등 여름철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기상청의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올 여름 평균 폭염일수는 20~25일로 평년(9.8일)보다 많고, 태풍은 9~12개가 발생해 2~3개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은 농촌지원국장 총괄하에 4개 팀(재해대책,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으로 구성했다. 평시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협조해 기상상황을 관찰(모니터링)하고, 품목별 현장기술

지원단 운영과 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인삼, 고추, 수박 등 여름철 주요 농작물의 '고온해 위험 예측정보'를 1주일 단위로 제공하고, '병해충 발생정보'를 월 2회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재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상습 침수지역·작목별 부산단지를 대상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안내하는 긴급 재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여름철은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작물 재배지의 배수로 등을 살피는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농수료에 발생한 잡초와 바다에 쓸

린 잔재물을 제거하고, 논두렁과 제방에 이상이 없는지 살핀다.

비오기 전·후 밭의 병해충을 방제하고, 집중호우 시 빗물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고랑에 흙비닐을 씌워주고 배수로를 정비한다.

과수원은 열매가지와 잎줄기를 덕 시설에 단단히 고정하여 강풍에 의해 쓰러지거나 바람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고 방풍망을 미리 점검하여 갑작스런 강풍에 대비한다.

시설하우스 주변은 물길을 만들어 바깥에서 하우스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농기계는 많은 비로 인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높은 지대로 이동시키고 물에 잠겼을 경우 절대 시동을 걸지 말

고 전문가에게 수리를 맡겨야 한다.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가뭄이 발생해 농작물이 마르고 기층의 폐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논은 논물 흘려대기로 물의 온도를 낮추고 병해충 발생 여부를 살핀 뒤 적용약제로 방제한다.

밭작물은 오전 중에 물을 주어 낮 동안 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하고 수박과 같이 열매가 큰 작물은 신문지나 잎으로 열매를 덮어 강한 빛에 의한 데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과수는 열매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광망을 설치하고 충분히 물을 공급해 열매나 잎이 타는 증상을 줄이도록 한다.

축사는 원활한 통풍 관리와 실내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안개분무, 선풍기 등을 가동하고,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해 기층 폐사에 대비한다.

돌풍과 비락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경우 지역에 따라 우박이 떨어질 수 있

다. 우박은 1차적으로 농작물에 물리적인 피해(열매, 잎, 가지 파열)를 준다. 따라서 우박 피해가 잦은 지역에서는 직경 5~10mm 우박 방지망 설치하여 예방한다.

우박이 내린 뒤 노지에서 자라는 밭작물(고추, 담배, 배추 등)의 생육을 돕기 위해 제4종 복합비료를 용액으로 만들어 잎에 뿌린다. 과수는 열매달린 상태를 확인한 뒤 나무의 자란새(세력)를 안정화하기 위해 비료 주는 양을 조절하거나 피해를 입은 열매를 솎아준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밭의 물길을 정비하고 오래된 시설물을 살펴보는 등 여름철 풍수해와 고온,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점검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행안부 공공데이터 운영평가 '우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평가 결과, 공공데이터 제공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15개 모든 지표에서 만점(1등급)을 획득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및 활용 영역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서 작년보다 공공기관까지 평가가 확대됐다.

세부 평가는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총 5개 영역 15개의 지표로 구성됐으며, 전체 평가대상 234개 공공기관 중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52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정부 정책에 따라 품질 관리체계 강화 및 데이터 개방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기관과 협업체를 일차리 창출을 진행하는 등 데이터 활용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금운용정보 공개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내채권투자정보' 등 11종을 추가 개방했으며, 앞으로도 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올 1분기 기금 적립금 698조원

### 국민연금, 수익률 -6.08%... 해외연기금 대비 양호

###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의 주식시장 악화가 원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기금운용본부는 2020년 1분기 말(3.31.)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698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수익률은 -6.08%를 나타내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올해 1분기 기금운용 수익률이 음의 성과를 나타낸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악화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경을 넘어선 확산세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에 사상 유례 없는 충격을 주었다.

글로벌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해

외 연기금들도 큰 폭의 수익률하락을 보였으며, 1분기 실적은 공시한 주요 연기금 중 국민연금이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월 현재 주식시장은 지난 1분기 동안의 나락을 상당부분 만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 및 채권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의 전체 수익률도 지난 1분기 동안의 나락을 만회할 만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장기투자자로서 기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지난달 29일 익산원에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수박, 멜론을 냉장 컨테이너로 홍콩에 첫 수출을 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 멜론에 이어 수박도 홍콩 진출

### 전북농협, 익산원에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선적식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지난달 29일 익산원에농협(조합장 김봉화) 산지유통센터에서 수박, 멜론을 냉장 컨테이너로 홍콩에 첫 수출을 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 수박은 비파과 당도선별로 12브릭스 이상 고당도 수박을 수출한다.

익산원에농협은 전년도에 판매 사업으로 수박을 35억(2,340톤), 멜론은 27억(1,200톤) 취급하여 농업인 소득향상 위해 힘썼다.

올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3,500톤 수박을 현대백화점, 농협하나로유통, 홈플러스 등에 판매할 계획이며,

/김윤상 기자

멜론은 K-멜론(농협전국연합사업단)으로 1,230톤 판매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국내는 물론 홍콩에도 수출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농산물로 성장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익산원에농협은 향후 홍콩은 물론 일본시장에도 신규 진출할 계획이다.

박성일 전북농협 본부장은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전북도청과 협업체를 구축하고 있다. 익산원에농협은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힘쓰며 수출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평생교육진흥원과 노후준비 교육 협약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센터(센터장 나영희)는 지난달 2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자)과 비대면(온라인) 노후준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온라인 노후준비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약식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노후준비서비스 비대면 교육 강화 지원 △노후준비와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 협력 강화 △기타 다양한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노후준비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6월부터 국가평생교육 포털 '늘배움'을

통해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총 23개의 강좌를 제공하며, 9~11월에는 화상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국민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노후준비서비스 전문인력을 자체 양성하여 502만 9000여 명의 국민에게 교육 또는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내연금' 사이트(www.nps.or.kr)와 '내걸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운영을 통한 노후준비자가진다. 공사연금 통합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나영희 중앙노후준비센터장은 "2년간의 노후준비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협력을 통해 대국민 교육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농어촌공 전북본부 '경영전략회의' 부안서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지난달 29일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 전북지역 내 10개 지사장과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2020년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2020년 2/4분기



합동 정보기행사도 진행

합동 정보기행사도 진행

이날 회의를 마치고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부안 전통시장을 방문, 직원들과 함께 식사 후 지역화폐인 부안사랑상품권 구매로 장보기 행사와 정보기행사에서 구입한 물품을 지역경로당, 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에게 기부했다. 이번 회의의 및 행사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직원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 수칙을 준수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부안지역에서 작게나마 지역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했다"며 "부안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전기안전공사, '혁신 일자리' 국민 아이디어 공모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공공혁신·일자리 창출에 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국민참여 혁신·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 국민 제안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 모델을 탐색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참여 사업이다.

공모범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청년, 여성 등 계층별 일자리, ▲전기안전 특화형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공사 서비스 개선, ▲조직구조 개선,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 등 '공공혁신'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일자리 창출과 공공혁신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epeople.go.kr/idea)를 통해 접수한다.

응모기간은 6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접수 작품들은 내부심사와 국민투표,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수상작이 가려진다. 최우수상 등 입상자 9명에게는 총 17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온라인 투표 참여자와 우수 댓글 작성자 65명에게도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전개공,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경기 활성화 동참

### 공사 4건 75% 지역업체서 수주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최근 발주한 공사 4건의 입찰결과, 75%를 지역업체에서 수주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사에서 발주한 입찰은 전기공사사업,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따라 분리발주한 전기공사 2건, 정보통신공사 2건 등 총 4건이다.

공사에서는 4건 모두 지역제한 규모를 초과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를 제고를 위해 지역업체 49% 이상 의무공

동도급 하도록 입찰공고 했다.

4건에 대한 입찰결과, 민성 A-2블록 정보통신공사, 군산공공 행복주택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등 3건 모두 지역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며, 민성 A-2블록 전기공사는 지역업체가 49%를 수주하여 총 계약금액 103억 1,600만원 중 75%에 해당하는 77억 3,600만원이 지역업체 몫으로 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건설 경기 및 지역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 농협은행 전북본부, 영농철 맞아 진안서 농촌일손돕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지난달 29일 영농철을 맞아 진안군 부귀면에 위치한 부귀농협 버 공동육묘장에서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부족과 육묘 수급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도움이 손길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농협 진안군 지부(지부장 김성훈), 부귀농협(조합장 김명배)이 함께 실시한 일손돕기에는 2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벼 육묘



모판나르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장기요 본부장은 "농촌농사를 기원하는 영농철이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그 어느때보다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농가·농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은행, 코로나19

### 피해기업 금융지원 확대

K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새만금개발공사·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전북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억원 한도로 (전북은행 7억원 특별출연) 기존 운용 중인 "공공기관 상생협력 협약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에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 지원을 추가지원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최대 2억2천만원 한도,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8년 분할상환, 금리 최저 2.14% ~ 최고 2.54%(변동금리) 수준을 지원한다.

이번 추가된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전북 도내 소재 업체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와 은행이 추천하는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2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이번 지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부족, 매출감소에 따른 결제자금 부족, 종업원 급여, 고정지출 등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 한전 전북본부, 아파트 정전

### 긴급복구지원반 운영 투입

한전 전북본부(본부장 이경섭)가 고압 아파트의 구내설비 정전복구시 긴급 지원으로 정전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고객 불편을 크게 감소시켜 화제다.

지난 20일 오전 5시50분 경, 전주시 반월동 S 아파트에서 플랜트 청소 후 마무리작업 미숙으로 고객 구내 지하 수변전실 침수로 418세대의 전기공급이 중단돼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한전은 고객 수전설비 복구가 지연되지 전력공급을 위한 비상 발전차를 투입했다. 아파트 수전설비 복구 작업이 지연으로 30시간가량 소요됐고, 한전은 복구완료시까지 비상발전기를 지원했다.

또한, 긴급 복구 지원반을 투입해 주민들이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김윤상 기자